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dapt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oon-Ok Kim(200061@shinhan.ac.kr)*, Hyun-Suk Lim(progress@howon.ac.kr)**,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거주 지역 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주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04명(도시 148명, 농촌 156명)이다. 연구결과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 삶의 질은 농촌이 도시보다 낮았고, 거주 지역별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는 삶의 질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었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을 잘 영위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의 특성에 맞는 거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우자지지, 가족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중재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배우자지지 | 가족지지 | 결혼적응 | 삶의 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regarding the effect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s marriage adaptation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on their quality of the life, i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spouses and families for different areas of residence. This is in order to serve as the preliminary data for preparing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are suited to different areas of residence, so that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may be improved. This study is a correlational research that targeted 304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148 in urban areas, 156 in rural areas).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upport from spouses and families, marriage adaption,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lower in rural than in urban areas and that support from spouses and families, and marriag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or all areas of residence. Also,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spouses and families in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dapt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lso, it appeared that this moderating effect was more important in rural than in urban area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at customiz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ach area of residence be developed so that regardless of the area, migrant women will be able to lead a marriage well and live a fulfilling life.

■ keyword : | Marriage Immigration Women | Spouse Support | Family Support | Marital Adaptation | Quality of Life |

* 본 연구는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5월 07일

수정일자 : 2015년 06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6월 15일

교신저자 : 임현숙, e-mail : progress@howo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며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이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급속적인 증가를 보인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2014년에 이주한 여성 수는 151,347명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100,809명을 합하면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2]. 이렇듯 국제결혼은 농촌 및 중소도시 남성들에게 일반적인 결혼문화로 자리하면서 도시지역의 일반 회사원까지, 그리고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3],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결혼의 32%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새로운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이주여성은 국민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감소추세에 있다[5].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5][6]에서는 아직까지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와 차별, 경제적 빈곤,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결혼과 동시에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경험하거나, 시부모와 형제 및 자매 등과 동거하는 확대 가족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 한국에서 이주민으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들로 인해 삶의 수준 또한 낮아지고 있다[7].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 자녀 그리고 시댁식구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은 우리사회 구성원 전반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1990년대 국제결혼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가 주로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도시 거주 외국인과 결혼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8],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80%는 도시(동 지역), 20%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9]. 도시와 농촌의 거주환경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전통을 중요시하고, 가부장적 특성이 강하며, 도시보다 낮은 소득 수준 등이 특징이 된다. 또한 열악한 교육여건과 빈약한 문화시설과 더불어 지리적으로도 외부와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아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쉽게 취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반면 도시는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에 비해 친구관계 및 가족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11], 지리적으로도 현대적인 문화시설 등의 접근이 용이해 생활여건이 더 편리한 이점이 있다[12]. 최근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환경이 다른 만큼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들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적응도는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 이국땅에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올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배우자이며, 결혼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13]. 결혼적응도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여 부부가 조화를 이루면서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 적응하며 만족을 느끼고 한국의 주부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14].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활동의 기회 부재 등으로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결혼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남편과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15].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적응도는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적응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지지는 이주여성들의 안전한 정착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지지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 등을 제공·교환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지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특히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지지망을 이루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친밀한 가족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17], 결혼생활을 비롯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18]. 실제로 이주여성들은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얻기 위해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9].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 부모 및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8][20]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고, 거주 지역 형태에 따른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바가 없다.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 기초생활비, 직업과 주관적인 인식에 관련한 친구 관계, 관심과 사랑, 자존감 등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와 농촌은 소득, 업종,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에 따른 가족과 배우자의 지지가 이주여성의 적응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인 결혼적응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거주 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 삶의 질의 정도가 거주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략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거주지역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 및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다.
- 2) 거주지역에 따른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3)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남성을 남편으로 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S시의 3개 구청과 J도에 소재하는 2개의 이주여성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였으며,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대상 기관의 한국어교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

며 연구 도중에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국어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3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자, (2) 한국어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20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 수는 157명이었다[21]. 최종 수집된 자료는 304부였으며, 도시 거주자가 148명(48.7%), 농촌 거주자가 156명(51.3%)이었다.

3. 연구 도구

3.1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김해자[20]가 사용한 '배우자의 보살핌 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총 12점에서 48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박지원[22]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간으로 김은실[23]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 상 문장의 부정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긍정 문항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가족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가족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움으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제해결 관련된 정보, 필요한 돈, 물건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2점에서 60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3.3 결혼적응도

결혼적응 척도는 Spanier[24]가 개발한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이민식 등[25]이 번역한 부부관계 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부관계에서 주요문제에 대한 의견일치도(dyadic consensus, 0-65점) 13문항, 부부가 어떤 활동을 같이 참여하는 정도인 응집력(dyadic cohesion, 0-24점) 5문항, 현재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dyadic satisfaction, 0-50점) 10문항, 애정표현과 성생활 만족도를 나타내는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0-24점) 4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적응 척도는 가중치가 다른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따라 0에서 1 혹은 0에서 6점까지 부여하였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문항 중 5문항, 애정표현 4문항 중 2문항은 역문항이며, 총 0점에서 151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3.4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삶의 질 척도(WHOQOL)로서 다른 삶의 질 척도에 비해 횡문화적으로 적용가능하고 타당한 평가 도구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성길 등[26]이 각문화권에서 삶의 질을 표준화할 때 시행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WHOQOL-BREF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서 신체적 건강 7문항, 사회적 관계 3문항, 심리적 6문항, 생활환경적 영역 8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총 25점에서 100점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χ^2 검정과 t 검정을 수행하였고,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변수들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거주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거주 지역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농촌 거주자의 경우 베트남 여성(46.8%)이 가장 많은 반면, 도시 거주자는 중국인(41.2%)이 가장 많았고($\chi^2=32.803, p<.001$), 도시 거주자가 농촌보다 국적 미취득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15.026, p<.001$). 학력별로는 본인($\chi^2=330.996, p<.001$)과 배우자($\chi^2=74.599, p<.001$) 학력 모두 도시 거주자가 농촌보다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았고, 종교는 농촌 거주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chi^2=16.917, p<.001$).

월 소득은 도시 거주자가 더 높았고($\chi^2=31.217, p<.001$), 농촌 거주자의 경우 본국에 송금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5.3%나 되었다($\chi^2=33.173, p<.001$). 농촌 거주자가 결혼소개소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높았고($\chi^2=15.052, p<.001$), 배우자의 직업이 없는 비율은 도시 거주자가 높았다($\chi^2=7.783, p<.05$). 본인($t=-5.348, p<.001$)과 배우자($t=-7.843, p<.001$)의 연령은 모두 농촌 거주자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농촌 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유의하게 길었다($t=8.242, p<.001$). 그러나 자녀 유무, 가족 형태, 본인 직업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gion (N=304)

Variable	Rural	Urban	Total	χ^2 / t
	N(%) / M±S D	N(%) / M±S D	N(%) / M±SD	
Host country				
China	26(16.7)	61(41.2)	87(28.6)	32.803***
Philippines	33(21.2)	38(25.7)	71(23.4)	
Vietnam	73(46.8)	43(29.1)	116(38.2)	
Others	24(15.4)	6(4.1)	30(9.9)	
Children				
Yes	29(18.6)	34(23.0)	63(20.7)	.888
No	127(81.4)	114(77.0)	241(79.3)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Yes	87(55.8)	49(33.6)	136(45.0)	15.026***
No	69(44.2)	97(66.4)	166(55.0)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68(43.9)	35(23.6)	103(34.0)	30.996***
High school	81(52.3)	78(52.7)	159(52.5)	
University and above	6(3.9)	35(23.6)	41(13.5)	
Education of spouse				
Below middle school	62(40.0)	22(15.0)	84(27.8)	74.599***
High school	85(54.8)	55(37.4)	140(46.4)	
University and above	8(5.2)	70(47.6)	78(25.8)	
Religion				
No	109(69.9)	69(46.6)	178(58.6)	16.917***
Yes	47(30.1)	79(53.4)	126(41.4)	
Family Members				
Nuclear Family	68(43.6)	75(50.7)	143(47.0)	1.531
Extended family	88(56.4)	73(49.3)	161(53.0)	
Average monthly income(10,000 won)				
≤150	94(60.3)	42(28.4)	136(44.7)	31.217***
>150	62(39.7)	106(71.6)	168(55.3)	
Sending money to family				
Yes	23(14.7)	66(44.9)	89(29.4)	33.173***
No	133(85.3)	81(55.1)	214(70.6)	
Be achieved marriage route				
Introducer	100(64.1)	62(41.9)	162(53.3)	15.052***
Family acquaintance	56(35.9)	86(58.1)	142(46.7)	
Job				
Yes	41(26.3)	28(18.9)	69(22.7)	2.347
No	115(73.7)	120(81.1)	235(77.3)	
Job of spouse				
Yes	152(97.4)	129(89.6)	281(93.7)	7.783*
No	4(2.6)	15(10.4)	19(6.3)	
Age	32.49±7.81	28.49±4.87	30.52±6.82	-5.348***
Age of spouse	47.61±7.27	41.86±5.33	44.78±7.00	-7.843***
Marriage duration	7.03±4.44	3.66±2.31	5.35±3.92	8.242***

*p<.05, ***p<.001

2. 거주지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

거주지에 따른 결혼적응도, 가족지지, 배우자지지 및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적응도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척도인 응집력은 유의하게 도시가 높았고($t=4.219, p<.001$), 가족지지($t=2.127,$

p<.05)와 배우자지지(t=3.479, p<.001), 삶의 질(t=3.358, p<.01)에서도 도시 거주자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하위 영역도 신체적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하게 도시 거주자가 높았다 [Table 2].

Table 2. Difference in primary variable by region (N=304)

Variable	Rural M(SD)	Urban M(SD)	Total M(SD)	t
Marital adaptation	114.13 (11.58)	114.49 (13.87)	114.31 (12.73)	.243
Consensus	53.75 (8.45)	53.38 (10.59)	53.57 (9.54)	-.338
Cohesiveness	12.40 (1.45)	13.21 (1.84)	12.80 (1.70)	4.219***
Relationship satisfaction	37.18 (4.13)	37.24 (5.38)	37.21 (4.78)	.107
Expression of affection	10.80 (1.60)	10.67 (2.06)	10.74 (1.83)	-.632
Family support	4.02 (.59)	4.18 (.75)	4.10 (.67)	2.127*
Spouse support	2.61 (.57)	2.91 (.90)	2.76 (.76)	3.479***
Quality of life	3.31 (.40)	3.50 (.58)	3.40 (.50)	3.358***
Physical	3.30 (.37)	3.36 (.48)	3.33 (.43)	1.090
Social	3.42 (.60)	3.80 (.76)	3.60 (.70)	4.796***
Psychological	3.28 (.45)	3.43 (.68)	3.36 (.58)	2.305*
Living	3.31 (.52)	3.55 (.75)	3.43 (.66)	3.249**
General	3.22 (.77)	3.66 (1.08)	3.44 (.96)	4.059***

*p<.05, **p<.01, ***p<.001

3. 거주 지역별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거주 지역별 결혼적응도, 가족지지, 배우자지지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배우자지지, 가족지지, 결혼적응도는 삶의 질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결혼적응도의 하위요인인 응집력의 경우 농촌거주자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r=.17, p<.05), 도시거주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r=.06, n.s.), 삶의 질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 primary variable by region (N=304)

variable	Marital Group adaptation	Conse nsus	Cohesi veness	Relatio nship satisfactio n	Expres sion of Family Spouse support
Quality of life	Rural .50*** .47*** .17* .24** .39*** .65*** .60***	Urban .48*** .36*** .06 .35*** .38*** .60*** .60***			
	Rural .44*** .43*** .15 .17* .32*** .51*** .40***	Urban .41*** .29*** .09 .34*** .26** .35*** .35***			
Physical	Rural .40*** .37*** .16* .18* .30*** .44*** .59***	Urban .35*** .29*** -.01 .24** .25** .44*** .55***			
	Rural .44*** .40*** .14 .22** .35*** .50*** .52***	Urban .40*** .32*** .05 .25** .32** .54*** .51***			
Social	Rural .42*** .38*** .14 .22** .31*** .62*** .52***	Urban .42*** .31*** .06 .32*** .39** .59*** .60***			
	Rural .31*** .26** .03 .20* .29*** .47*** .42***	Urban .49*** .36*** .07 .37*** .44*** .65*** .57***			

*p<.05, **p<.01, ***p<.001

4. 지역별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거주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 지역별로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 및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은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회귀모형의 1단계에서 통제하였고, 연구변수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곱하여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를 투입하여 일반적 특성을 통제 한 후에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후, 3단계에서 결혼적응도 및 가족지지와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호작용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거주 지역별로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in influence of regional marriage adaptation to quality of life (N=304)

Variable (criteria)	Rural			Urban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β	β	β	β	β
Age	.06	-.07	-.10	.28*	.09	.08
Age of Spouse	.09	.07	.11	-.29**	-.18*	-.26**
Marriage duration	-.16	.00	-.02	.18	.18	.22*
Host country (China)						
Philippines	.09	.01	-.13	.05	.10	.08
Vietnam	.10	-.04	-.14	.03	.05	.03
Others	.15	.19	.14	.04	.07	.05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18	-.20*	-.16*	.51***	.34***	.36***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19	.14	.05	-.05	-.06	.00
University and above	.12	.06	.04	-.09	-.08	-.08
Education of Spouse (Middle School)						
High school	.09	.06	.08	-.10	-.07	-.09
University and above	.04	-.03	-.05	-.17	-.11	-.09
Religion (no)	.19	-.08	-.05	.04	-.08	-.03
Average monthly income	-.10	-.19*	-.17*	.25**	.01	.07
Sending money to family (no)	.02	.02	.02	.31**	.19*	.16
Be achieved marriage route	.10	-.04	-.07	.13	.02	.03
Job of spouse (no)	.00	-.07	-.02	.11	.16*	.24**
Marital adaptation (A)		.41***	.41***		.25**	.25**
Spouse support(B)			.42***		.43***	.38***
(A) × (B)			.28***			-.19*
R ²	.154	.530	.589	.374	.591	.609
F	1.499	8.136***	9.719***	4.632***	9.783***	9.905***

*p<.05, **p<.01, ***p<.001

먼저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를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37.6%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376$, $F=51.964$, $p<.001$) 53.0%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530$, $F=8.136$, $p<.001$), 결혼적응도($\beta=.41$, $p<.001$)와 배우자지지($\beta=.43$, $p<.001$)는 모두 유의하였다.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5.9%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059$, $F=18.507$, $p<.001$) 58.9%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589$, $F=9.719$, $p<.001$),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8$, $p<.001$). 지역 거주자의 최종 모형 III의 Durbin-Watson값은 1.93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28~5.1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즉, 농촌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지지가 높을 때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하였으며, 이를 도식으로 [Figure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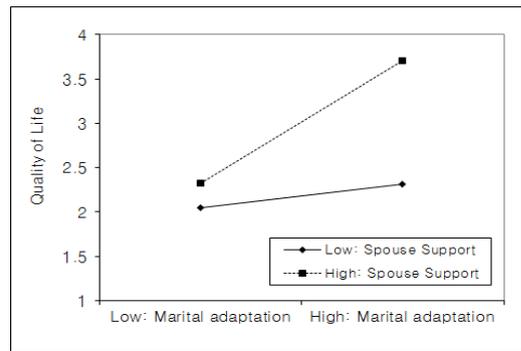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of immigrant women in the rural

도시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를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21.7%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217$, $F=32.287$, $p<.001$) 59.1%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591$, $F=9.783$, $p<.001$), 결혼적응도($\beta=.25$, $p<.01$)와 배우자지지($\beta=.43$, $p<.001$)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1.8%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018$, $F=5.543$, $p<.05$) 60.9%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609$, $F=9.905$, $p<.001$), 결혼적응도와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9$, $p<.05$). 도시 거주자의 최종 모형 III의 Durbin-Watson값은 1.99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46~3.5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즉, 도시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지지가 낮을 때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하였으며, 이를 도식으로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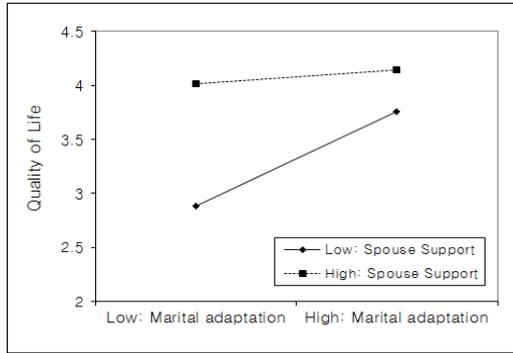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of immigrant women in the urban

거주 지역별로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농촌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를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48.8%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481$, $F=85.517$, $p<.001$) 63.5%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635$, $F=112.541$, $p<.001$),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4.4%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044$, $F=17.856$, $p<.001$), 67.9%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679$, $F=14.361$, $p<.001$),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01$). 최종 모형 III의 Dubin-Watson값은 2.16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29~5.4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즉, 농촌 거주자의 경우 가족지지가 높을 때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며, 이를 도식으로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를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량은 21.4% 유의하게 증가하여($\Delta R^2=.214$, $F=31.701$, $p<.001$), 58.8%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R^2=.588$, $F=9.679$, $p<.001$), 결혼적응도($\beta=.21$, $p<.001$)와 가족지지($\beta=.43$, $p<.001$)는 모두 유의하였다.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III에서는 설명량이 1.3% 유의하게 증가하였고($\Delta R^2=.013$, $F=4.061$, $p<.05$), 결혼적응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도 유의하였다($\beta=-.17$, $p<.05$). 즉, 가족지지가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도식으로 [Figure 4]에 제시하였다.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효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거주자의 경우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이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강했고, 도시거주자의 경우에는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이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influence of regional marriage adaptation to quality of life (N=304)

Variable (criteria)	Rural			Urban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β	β	β	β	β
Age	.06	-.12	-.15	.28*	.11	.09
Age of spouse	.09	.01	.04	-.29**	-.23**	-.25**
Marriage duration	-.16	-.03	-.05	.18	.16	.17
Host country (China)						
Philippines	.09	-.05	-.16	.05	.16	.14
Vietnam	.10	-.17	-.29*	.03	.06	.04
Others	.15	.15	.08	.04	.08	.07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18	-.21**	-.18*	.51***	.37***	.38***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19	.13	.11	-.05	-.13	-.07
University and above	.12	.06	.08	-.09	-.18	-.17
Education of spouse (Middle School)						
High school	.09	-.03	-.02	-.10	.00	-.03
University and above	.04	-.06	-.10	-.17	-.05	-.04
Religion (no)	.19	-.05	-.08	.04	-.07	-.05
Average monthly income	-.10	-.27***	-.28***	.25**	.06	.08
Sending money to family (no)	.02	-.06	-.06	.31**	.20*	.16
Be achieved marriage route	.10	-.05	-.09	.13	.04	.06
Job of spouse (no)	.00	-.06	.00	.11	.19**	.26***
Marital adaptation(A)		.38***	.37***		.21**	.23**
Family support(B)		.60***	.64***		.43***	.36***
(A) × (B)			.22***			-.17*
R ²	.154	.635	.679	.374	.588	.602
F	1.499	12.541***	14.361***	4.632***	9.679***	9.61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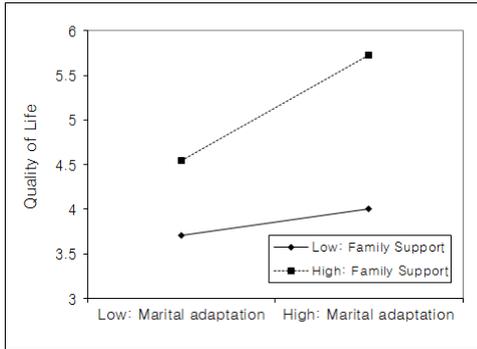


Fig. 3.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of immigrant women in the r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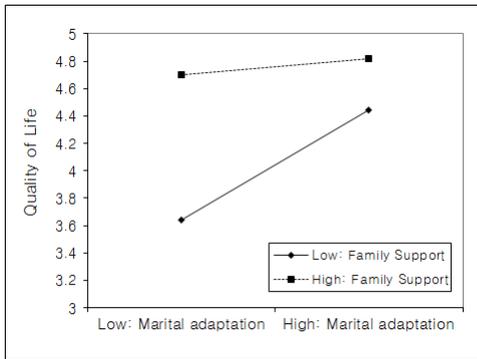


Fig. 4.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of immigrant women in the urban

IV.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에 대해 거주지에 따른 차이와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과 관계없이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거주형태에 관계없이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40]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시, 농촌이주여성은 모두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대화를 통

해 해결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불일치하는 부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결혼적응과정을 통해 결혼만족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응집력의 경우 농촌거주자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도시거주자는 그렇지 않았다. 농촌은 친구 및 이웃과의 교류, 사회적지지 체계가 원활하지 않고[41],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이 높은 상태에서 결혼적응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유일한 방법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응집력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도시는 농촌에 비해 여가생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남편과의 응집력이 삶의 질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숙 등[27]의 연구에서도 도시, 농촌 모두 배우자지지와 시부모와 동거할 때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거주형태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적응과정에서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양육 등의 낯선 경험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했을 때, 배우자의 부인에 대한 전념도와 함께 아내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는 대처기전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고, 이주로 부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로 되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필요한 돈, 물건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함을 제시한다[23]. 김연수[42]도 남편과의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시부모와의 관계에 갈등이 없고, 가족관계가 친밀할 경우 이주여성의 결혼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농

촌거주 여성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한국적 가족특성과 문화적 갈등, 환경적 여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결혼생활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이주에 의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배우자 및 가족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중간이상의 결혼적응도를 보였고, 거주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도시 114.49점, 농촌 114.14점으로 농촌과 도시 사이에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척도인 응집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농촌거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았다는 이지혜[36]의 연구, 부부갈등이 높았다는 김오남[28]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남인숙 등[27]의 연구에서는 거주지역별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도시가 높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결혼적응은 가족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부간의 결혼생활에 관한 것으로,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며, 잘 적응된 부부는 배우자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중요한 결정에 일치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하여 결혼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과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을 담당해야 하고, 배우자는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낳고 길러주며, 시부모를 잘 모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학습을 요구받고 동화를 강요당하는 상황들이 도시나, 농촌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역별로 결혼적응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응집력(dyadic cohesion)은 부부가 어떤 활동을 같이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는 농촌에 비해 높은 소득과 현대화 시설 및 편리한 문화시설 등으로 여가생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본 연구에서 도시지역 대상자들은 핵가족 비율이 높아 시댁과의 갈등이 낮고, 월소득이 높고, 결혼경로가 개인적

소개가 많고, 나이차가 작아 남편과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고, 결혼기간이 3,66년으로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시기이라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학력이 높을 경우 부부가 함께 서로 좋은 생각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등 남편과의 상호활동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처럼[25] 도시지역 이주여성의 학력이 높아 응집력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은 거주지역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지역 이주여성의 삶의 질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8]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현재 삶의 비중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진다[37].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이다[34]. 그러나 농촌은 주부로서 역할 외에 과중한 농사일, 부부갈등, 가족갈등 등으로 주부스트레스가 더 높다[27]. 또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문화 및 생활수준으로 인한 문화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38]. 가족의 소득수준 또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39], 본 연구대상은 농촌지역의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 39.7%로 도시보다 낮아 경제적 빈곤을 탈출할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나, 실제 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지리적·환경적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로 됨을 시사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은 거주형태에 관계없이 배우자 지지,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김진희[33]의 연구에서 거주형태에 관계없이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가족관계 갈등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도시, 농촌거주 이주여성 모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낯선 한국 땅에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활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로 부터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는 경감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김희옥[40]도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친밀한 가족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여 가족지지는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주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는 배우자지지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농촌지역이 2.61점, 도시는 2.91점으로 도시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연구[27][28]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29] 도시보다 농촌거주 여성이 더 높은 부부갈등과 결혼 불안정성이 보고되어 국내결혼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 모두 농촌이 도시보다 배우자지지를 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관계가 단절된 낯선 한국에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이며, 절대적 의존처로, 일차적 지지체계가 될 수 밖에 없다[30]. 그러나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부부간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이러한 성향이 더욱더 강하다[28]. 또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적 사고방식과 엄격한 위계질서로 인한 부부간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여 한국 남성인 배우자가 아내에게 지지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0][31]. 또한 선행연구[32]를 통해 배우자지지는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많을수록, 결혼경로가 중개업체를 통한 것일수록, 남편의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대상자들도 농촌지역은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15세로 도시 13세보다 많고, 결혼경로가 중개업체 64.1%로 가족소개 35.9%보다 높아 배우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아내의 욕구와 성격

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또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 39.7%로 도시 71.6%보다 낮기 때문에 배우자지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지지 역시 중간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도시가 4.18점으로 농촌지역 4.02점보다 더 높았다. 이는 김정혜[8]의 연구에서 거주지역별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농촌지역이 더 높았으며, 또 김진희[33]의 연구에서 가족갈등이 도시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정서가 완전히 다른 전통적인 한국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일 외에 농사일을 감당해야 하고[12], 대가족형태가 많아 시댁식구와 동거 및 노인 부양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34].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짙고, 가장장적인 사고로 인해 시댁가족과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가사일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또 도시와는 다르게 시댁식구와 동거 또는 근거리에 거주함으로 가사일 및 자녀출산, 양육 등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이주여성 출신국가의 문화적 차이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족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 이주여성들이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데 있어 가족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14]. 그러므로 이들이 결혼생활에 적응하여 안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댁식구 및 친지 등의 가족지지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도시,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편의 모집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타 지역 이주여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다국어 설문지를 준비하여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삶의 질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또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거주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과 도시의 특성에 맞는 배우자지지, 가족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적응도와 배우자 및 가족지지, 삶의 질에 대해 거주지에 따른 차이와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 삶의 질 변인 모두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농촌이 도시보다 낮았다. 그러나 결혼적응도의 하위요인인 응집력의 경우 농촌거주자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도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삶의 질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거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거주지역별 관계없이 배우자 및 가족지지, 결혼적응도는 삶의 질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배우자 및 가족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농촌이주여성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주변화 현상이 아니라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주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 및 가족의 도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주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재전략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농촌사회를 지속시키고 있는 지역주민인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상

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및 가족지지의 강화가 더욱더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 [1]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2012.
-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12월, 2014.
- [3] 한국여성복지회,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 [4] 통계청, 혼인통계, 2012.
- [5] 고은주,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6] 권복순, 차보현,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pp.109-134, 2006.
- [7] 임아리, 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8] 김정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9]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의 증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 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2009.
- [10] 이해정,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1]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2005.
- [12]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3] 김수정, 직장-부부의사소통에 따른 직무만족, 결혼생활만족 및 삶의 질-Work & Lifebalance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4] 신정현,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및 정서심리적 특

- 성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5] G. S. Jeong, Y. H. Kim, K. E. Park, E. A. Lee, J. H. Park, and S. A. Le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for social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Kyeonggido, Kyeonggido*, K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2007.
- [16] 박명희, 김창숙, 서영숙, 서희숙, 노현신,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pp.67-88, 1998.
- [17] 최경숙,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8] 임효영, 김경신,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189-203, 2001.
- [19] 정의정, 하규수,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222-231, 2012.
- [20] 김혜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5-11, 2008.
- [21]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nd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22]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23]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 [24] G. B. Spanier,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pp.15-28, 1976.
- [25] 이민식, 김중술, “임상분과: 부부관계 적응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91-299, 1995.
- [26]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대한신경정신학회지, 제39권, 제3호, pp.78-88, 2000.
- [27] 남인숙, 안숙희,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99-108, 2011.
- [28] 김오남,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29] 양순미, 유영주,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1호, pp.75-91, 2002.
- [30] 박미정,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1] 이해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pp.73-106, 2005.
- [32]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95-243, 2006.
- [33] 김진희, 박옥임,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제18집, 제1호, pp.127-160, 2008.
- [34] 김한곤,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제19집, 제1호, pp.83-120, 2009.
- [35]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제32권, pp.103-135, 2011.
- [36] 이지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7] S. T. Che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planning and evaluation of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11, pp.123-143, 1988.

- [38] 최정자,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9] 박재규,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5권, 제1호, pp.7-33, 2013.
- [40] 김희옥,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해시를 중심으로-*,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1] 성도경, 이지영,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pp.749-772, 2010.
- [42] 김연수,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제21권, pp.1-36, 2007.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
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
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건강심리

저 자 소 개

김 순 옥(Soon-Ok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
과(이학사)
- 1992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학과(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사회과학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1983년 2월 : 전북대학교 의과대
학부속 간호전문대학
- 1996년 2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
학원(간호학 석사)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학과(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